



INCHEON UNITED
SPONSOR

Premier Sponsor



Official Kit Sponsor



Official Sponsor



Official Partner



제6호 THE UNITED // 발행일 2024년 08월 24일 / 등록번호 영등풍라00591
 배포처 인천유나이티드 - 인천시 중구 침의전로 246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3층 / 전화 032-880-5600 / 홈페이지 www.incheonutd.com
 기사 인천유나이티드 UTD기지도 / 디자인 인쇄소 북원소, 더스포트즈 커뮤니케이션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한국호텔앤리조트빌딩 22층
 * 이 책자에 게재된 글, 사진, 도표 등 모든 기사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발행인의 허가 없이는 그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 할 수 없습니다.



THE UNITED

OFFICIAL MAGAZINE
2024.08.24 / 제6호

MATCH PREVIEW

‘치열한 하위권 싸움’ 인천,
최하위 전복 상대로 홈에서 승리 노린다

BLUEMAN INTERVIEW

‘인천공항 단골 손님’ 무고사
“인천공항은 집과 집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ROOKIE INTERVIEW

‘신에 로컬보이’ 강도욱,
인천에 꼭 필요한 선수로 성장하겠다

OUR CITY OUR UNITED

인천공항 소개 -
모든 길은 인천공항으로



INCHEON UNITED 2024 SQUAD

최영근 감독
HEAD COACH

변재섭 수석코치
COACH

박용호 코치
COACH

김재성 코치
COACH

황근우 선수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피민혁 선수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진도형 선수트레이너
ATHLETIC TRAINER

최재혁 물리치료사
PHYSICAL THERAPIST

김민석 팀매니저/통역
TEAM MANAGER

조용희 장비담당관
KIT MANAGER

1 민성준
GOAL KEEPER

25 이범수
GOAL KEEPER

29 김유성
GOAL KEEPER

31 성윤수
GOAL KEEPER

2 김건희
DEFENDER

3 김연수
DEFENDER

15 임형진
DEFENDER

17 김준엽
DEFENDER

20 델브리지
DEFENDER

23 정동운
DEFENDER

26 김성민
DEFENDER

28 민경현
DEFENDER

82 요니치
DEFENDER

5 이명주
MIDFIELDER

6 문지환
MIDFIELDER

7 김도희
MIDFIELDER

8 신진호
MIDFIELDER

16 이가람
MIDFIELDER

38 박진홍
MIDFIELDER

40 음포쿠
MIDFIELDER

9 무고사
FORWARD

11 제르소
FORWARD

19 송시우
FORWARD

21 백민규
FORWARD

34 하동선
FORWARD

66 김세훈
FORWARD

77 박승호
FORWARD

88 이종욱
FORWARD



INCHEON UNITED 2024 SCHEDULE

01R	03월 02일(토) 16:30	0	인천 : 수원FC	1	인천축구전용
02R	03월 10일(일) 16:00	0	서울 : 인천	0	서울월드컵
03R	03월 17일(일) 16:30	3	울산 : 인천	3	울산문수축구
04R	03월 30일(토) 14:00	2	인천 : 대전	0	인천축구전용
05R	04월 03일(수) 19:30	2	광주 : 인천	3	광주축구전용
06R	04월 06일(토) 16:30	0	인천 : 제주	1	인천축구전용
07R	04월 14일(일) 16:30	1	인천 : 대구	1	인천축구전용
08R	04월 21일(일) 14:00	4	강원 : 인천	1	춘천송암
09R	04월 28일(일) 14:00	0	포항 : 인천	0	포항스틸야드
10R	05월 01일(수) 19:00	3	인천 : 전북	0	인천축구전용
11R	05월 05일(일) 16:30	2	김천 : 인천	2	김천종합
12R	05월 11일(토) 16:30	1	인천 : 서울	2	인천축구전용
13R	05월 18일(토) 16:30	0	대전 : 인천	1	대전월드컵
14R	05월 25일(토) 19:00	1	인천 : 광주	1	인천축구전용
15R	05월 29일(수) 19:30	1	인천 : 울산	1	인천축구전용
16R	06월 01일(토) 19:00	3	수원FC : 인천	1	수원종합
17R	06월 16일(일) 18:00	2	전북 : 인천	2	전주월드컵
18R	06월 23일(일) 18:00	1	인천 : 포항	3	인천축구전용
19R	06월 26일(수) 19:30	1	제주 : 인천	0	제주월드컵
20R	06월 30일(일) 19:00	0	인천 : 강원	1	인천축구전용
21R	07월 05일(금) 19:30	1	인천 : 김천	1	인천축구전용
22R	07월 09일(화) 19:30	0	대구 : 인천	0	DGB대구은행파크
23R	07월 14일(토) 19:00	0	광주 : 인천	2	광주축구전용
24R	07월 17일(수) 19:00	1	울산 : 인천	0	울산문수축구
25R	07월 21일(일) 19:00	1	인천 : 수원FC	4	인천축구전용
26R	07월 27일(토) 19:30	0	인천 : 서울	1	인천축구전용
27R	08월 10일(토) 19:30	0	제주 : 인천	1	제주월드컵
28R	08월 17일(토) 19:30	2	대전 : 인천	1	대전월드컵
29R	08월 24일(토) 19:30	0	인천 : 전북	0	인천축구전용
30R	08월 31일(토) 19:30	0	대구 : 인천	0	DGB대구은행파크
31R	09월 01일(일) 16:30	0	김천 : 인천	0	김천종합
32R	09월 08일(일) 19:00	0	인천 : 울산	0	인천축구전용
33R	09월 15일(일) 19:00	0	포항 : 인천	0	포항스틸야드
34R	09월 22일(일) 19:00	0	인천 : 강원	0	인천축구전용

- 경기 경기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코리아컵 일정은 추후 발표 될 예정입니다.
- 변경된 경기 일정과 경기 관련 소식은 인천유나이티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vs JEONBUK PREVIEW

‘치열한 하위권 싸움’ 인천, 최하위 전복 상대로 홈에서 승리 노린다

글 = 손지호 UTD기자 (thswlgh50@daum.net)

8월의 유일한 홈경기에서 인천은 전북현대를 상대한다. 인천은 올해 전북 상대로 좋은 결과를 거뒀다. 시즌 첫 만남이었던 5월 10일 10라운드 경기에서 홈에서 완벽한 경기력을 앞세워 3-0 완승했다. 이후 두 번째 만남이었던 6월 16일 17라운드에선 원정에서 뒷심을 발휘하며 2-2 무승부를 거뒀다.

전북은 이번 시즌 강등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시즌 초 6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했고 이 여파로 단 페트레스쿠 감독이 경질됐다. 이후 박원재 감독 대행을 거쳐 5월에 김두현 감독이 정식 선임됐다. 하지만 부임 이후 리그 7경기에서 3무 4패로 승리를 챙기지 못했고 코리아컵 마저 K리그 2 김포 FC에게 패하며 16강에서 일찍이 탈락하고 말았다.

강등권에서 벗어나겠다는 전북의 의지는 여름 이적시장에서 강하게 드러났다. 수원FC에서 맹활약하던 이승우를 품었다. 여기에 전진우, 안드리고까지 데려오며 부족했던 전방 공격진의 날카로움을 높였다. 중원에서 한 국영, 유제호를 영입하고 김진규가 김천 상무에서 돌아오면서 힘을 보탤다.

수비진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정태욱이 임대를 떠난 자리에 제주에서 연제운, 안양에서 김하준을 영입했고 김천 상무에서 변득이는 모습을 보였던 측면 수비수인 김태현을 전역하자마자 데려와 측면 보강까지 성공했다. 최후방에는 정민기가 빠진 자리에 김준홍이 군 전역 후 원 소속팀인 전북으로 돌아와 일찍이 선발로 자리매김했다.

아직 여름 이적시장의 효과는 미비하다. 여름 이적시장 종료 후 완전체로 나선 첫 리그 경기에서 광주에게 무기력하게 패하며 반등에 실패했다. 또한 수

비 보강을 위해 영입한 연제운이 부상으로 이탈했다. 리그 최다 실점인 상황에서 핵심 수비수의 이탈로 더욱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하지만 기존 외국인 자원인 티아고와 에르난데스의 공격력이 시즌 초에 비해 살아났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김진규의 발끝도 매섭다. 또한 좌우 측면에 빠르고 저돌적인 돌파가 가능한 선수들이 많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인천은 뒷공간 허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직전 경기에서 극적인 역전승으로 한껏 분위기를 끌어올린 채 원정길에 나선다. 부상으로 장기간 이탈했던 권창훈까지 득점을 맛봤다. 선발과 벤치 대기 명단에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팀 성적만으로 절대 방심할 수 없다.

인천도 최영근 감독이 부임하면서 전술적으로 큰 변화를 시도했다. 부임 첫 경기였던 26라운드 제주 원정에서 승리하며 연패를 끊어내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하지만 직전 대전 원정에서 역전패를 거둬 연승으로 이어가지 못했다. 다행인 점은 무고사가 2경기 연속 골로 흐름을 타고 제르소도 복귀하며 다음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인천과 전북의 통산전적은 15승 22무 23패로 열세다. 특히 이번 시즌에 전북과 맞대결에서 1승 1무로 진 적이 없다. 인천은 홈에서 3무 5패로 8경기째 승리가 없다. 인천이 홈에서 마지막으로 승리했던 3달 전 상대가 바로 전북이었다. 그 당시 거둔 시원한 승리를 다시 한번 재현해야 한다.



인천공항 단골 손님 무고사

인천공항은 집과 집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글 = 박범근 UTD기자(keu0617@naver.com)

사진 = 오석근 작가(punchandjudy@naver.com)





인천은 무고사에게 단순한 거점이 아닌 축구 인생의 중요한 무대가 된 도시다. 그중에서도 특히 인천공항은 그가 대표팀 소집을 위해 자주 찾는 곳으로, 무고사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다. 인천공항은 무고사의 축구 여정에서 중요한 출발점이자 도착점이다. 이번 블루맨 인터뷰에서는 UTD기자단이 무고사를 만나 인천과 인천공항에서의 경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무고사와 인천공항

선수 생활을 하면서 여러 공항을 많이 가봤을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의 퀄리티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나요?

상위권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계 여러 공항을 다녀봤습니다. 본국인 몬테네그로와 한국을 오갈 때 들리는 튀르키예 이스탄불 공항과 더불어서 인천공항도 넓고 쾌적한 환경을 자랑합니다. 카페, 식당 등 여가 시설을 비롯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좋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자주 이용하거나 혹은 이용해 보고싶은 시설 및 서비스가 있나요?

특별히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파스쿠찌라는 커피 브랜드를 좋아합니다. 그곳에서 에스프레소 한 잔의 여유를 즐기죠. 공항에도 그 카페가 있어서 좋습니다. 공항 전망대라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네요.

공항은 누군가에게는 기쁨의 공간, 누군가에게는 이별의 장소입니다. 무고사 선수는 모두 겪었습니다. 정반대의 두 상황에서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들었나요?

한국은 제2의 고향과 다름없습니다. 시즌을 마치고 휴가를 가거나 아니면 대표팀 차출을 떠날 때 혹은 반대로 휴가를 마치고 대표팀 차출에서 한국에 돌아올 때는 항상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2022년 7월 일본으로 떠날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동안 공항에서는 늘 좋은 감정만 가득했는데 그때는 아쉬움과 섭섭함이 공존했죠. 지금은 다시 한국에서 활약하고 있기에 인천공항에 갈 때면 늘 설레고 좋습니다.



ACL도 다녀왔고, 대표팀 합류를 위해 인천공항에서 출국한 경우가 많습니다. 무고사 선수만의 출국 루틴은 무언인가요?

몬테네그로로 향할 때는 주로 저녁 비행기를 이용합니다. 특별한 루틴이 있지는 않습니다. 수속을 하고, 짐을 부치고, 게이트로 들어가서, 출국 심사를 받고,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다가, 게이트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출국합니다.

무고사 선수만의 장거리 비행 팀이 있나요?

아무래도 장거리 비행은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몬테네그로로 떠날 때에는 저녁 12시~1시 비행기라서 폭 자는 편입니다. 반대로 한국으로 돌아올 때도 밤 비행기를 타서 숙면을 취하는 편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시차 적응하는 데 애를 먹어서, 빠르게 시차를 찾을 수 있게끔 스스로 컨트론했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힘들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여서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선수 생활하시면서 비행기를 타시는 일이 많은데 주로 비행기를 탈 때 어떤 좌석을 선호하나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운데 좌석보다는 창가 혹은 복도 쪽에 개인적인 공간이 더 확보되는 좌석을 선호합니다.

유럽 국가대표 선수이기에 장거리 이동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다녀올 때마다 어떤 기분이 들고 컨디션은 어떻게 조절하고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 올 때면 항상 설렘을 안고 옵니다. 개인적으로 시차 적응에 초점을 맞춥니다. 수면유도제 등 약의 도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개인의 루틴과 방법에 따라서 빠르게 시차 적응을 할 수 있게끔 힘쓰고 있습니다.

인천의 첫 해외원정인 요코하마 원정 때 공항이나 기내에서 에피소드가 있다면?

사실 요코하마 원정 당시에는 인천공항이 아닌 김포공항을 이용했습니다. 특별히 생각나는 에피소드는 사실 없는 거 같습니다. 다만 고베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약 2개월 만에 다시 일본 땅을 밟으니 기분이 오묘하기는 했습니다.

몬테네그로 대표 선수로서 한국 대표팀과 경기하게 된다면 상대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젊은 인천 선수는 누구인가요?

지금 인천에는 미래가 기대되는 재능 있는 어린 선수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김건희 선수를 꼽고 싶습니다. 경기를 거듭하면서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인천을 넘어 한국 축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고사 선수에게 공항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인천공항은 집과 집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몬테네그로와 한국 모두 제 집이기 때문이죠.



무고사와 인천유나이티드

무고사 선수의 스트롱맨 세리머니가 인천 유스에게도 퍼졌습니다. 게임에도 스트롱맨 세리머니가 추가되었습니다. 시그니처 세리머니가 점점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 기분이 어떤가요?

매번 인터뷰에서 말씀드리지만 스트롱맨 세리머니는 인천에 와서 제가 만든 겁니다. 우리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유소년 선수들이 그 세리머니를 따라하는 모습과 게임에도 추가된 것을 봐서 당연히 기분이 좋고 새로웠습니다.

최근 U17 챔피언십 우승컵을 들어올린 대견고 선수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U17 챔피언십 우승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대는 FC서울 유스였습니다. 우리 인천과 서울은 라이벌 관계입니다. 어린 선수들이 우승이라는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진심으로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김동현(김천), 김보섭, 김세훈(인천), 박현빈(부천) 등 훌륭한 인재들이 계속해서 프로 선수로 성장하고 있기에 인천 유스 선수들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입어본 인천의 유니폼 중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시즌 유니폼인가요?

홈 유니폼은 우리 인천 구단의 아이덴티티인 파랑, 검정 스트라이프를 기반으로 만들었기에 모두 예쁩니다. 특별히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아이보리 톤의 2022시즌 원정 유니폼입니다.

인천은 K리그에서 외국인 선수의 비중이 가장 큰 팀 중 하나입니다. 외국인 선수들과 경기장 안팎에서의 호흡과 관계는 어떤가요?

우리 인천은 최고의 외국인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르소, 음포쿠, 델브리지, 요니치까지 각자의 포지션에서 최선의 노력과, 최상의 경기력을 보임으로서 팀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도 가족들끼리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친구이자 팀원입니다.

개인 득점 순위 상위권을 기록 중입니다. 리그 득점왕 타이틀을 의식하고 있나요?

항상 저는 개인적인 목표를 우선으로 삼지 않습니다. 제가 할 일은 팀을 돕기 위해 골을 만드는 역할입니다. 팀을 위해서 뛰다 보면 개인적인 타이틀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최영근 감독님이 부담해서 팀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수석코치로 함께했던 최영근 감독님께 기대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최영근 감독님과 좋은 기억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우리의 새로운 감독님으로 다시 함께하게 되어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선수들과 교감, 뛰어난 기술적 능력 등을 가진 좋은 지도자이십니다. 새로운 감독님과 함께 우리 인천이 반드시 반등에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무고사 선수가 생각하기에 팀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삼위일체입니다. 선수단과 스태프 그리고 구단과 팬 모두 하나 되어야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천은 그 삼위일체에 특화된 구단입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고, 응원하죠. 인천이 다시 정상궤도로 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남은 리그는 어떻게 준비할 예정인가요?

파이널라운드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경기, 한 경기 전쟁이라는 각오로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경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위권 팀들과의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구단의 상징적인 선수로 자리 잡은 무고사 선수, 앞으로 인천과 함께 경험해보고 싶은 최고의 경험은 무엇인가요?

우리 인천이 지난해 모두가 안 된다고 말했던 아시아 무대를 경험했듯이, 제가 인천을 떠나는 그날까지 리그든 코리아컵이든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것이 최고의 영광일 거 같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목표를 이루고 싶습니다.

무고사 선수가 인천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듯, 팬들 역시 무고사에 대한 응원과 애정을 아끼지 않습니다. 어떤 선수로 인천 팬들에게 남고 싶나요?

100년 뒤에도 ‘인천에 무고사라는 선수가 있었다’라고 기억되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인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언젠가 팀을 떠나고, 은퇴하고 나서도 인천 팬 여러분과 함께했던 모든 추억을 잊지 않고 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반대로 인천 팬들에게도 저 무고사라는 외국인 선수는 히로애락을 함께한 최고의 선수로 기억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본 팬 분들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인천 팬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자랑스럽습니다. 팬 여러분께서 우리 인천을 사랑하는 만큼 저 또한 인천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지금은 비록 팀이 힘든 상황에 있지만 언제나 그랬듯 우리 서로 믿고, 의지하며 이 위기를 하루빨리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발 더 나아가 우리의 큰 영광을 위해 또 다른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번 촬영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주관하는 2024년 예술인파견 지원-예술로 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ROOKIE INTERVIEW

‘신에 로컬보이’ 강도욱, 인천에 꼭 필요한 선수로 성장하겠다

글 = 이지우 UTD기자
(jw2000804@naver.com)

2024년 7월 17일, 인천 중원을 책임질 새로운 유망주가 그라운드
에 데뷔했다. 바로 인천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축구를 배우며 성장
한 로컬보이 강도욱이다. 뛰어난 기술과 시야를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간 강도욱은 향후 더 좋은 활약을 펼치리라는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다. UTD기자단은 프로 데뷔전을 치르면서 당차게 출발을
알린 강도욱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천에서 나고 자란 로컬보이 강도욱

강도욱은 일찍부터 존재감을 보여준 유망주였다. 인천에 소재한 보
경FC U-15 시절 U-14 국가대표팀에 소집되어 중국에서 열린 우
한컵에 참가했고, 부평고등학교를 다니던 당시에는 U-18 국가대표
팀 소속으로 서울 EOU컵에 출전했다. 뛰어난 유망주를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에도 강도욱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그의 인천 입단 소식
이 알려지자 많은 팬들이 기대감을 품었다.

강도욱은 부평고 시절을 회상하며 “고등학교 시절에는 확실히 좋은
활약을 펼쳤던 기억이 있다. 부평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축구를 즐겁
게 배웠고, 얻은 내용을 경기 중에 잘 활용한 덕분에 좋은 평가가 따
라왔다고 생각한다”는 소감을 남겼다.

인천에서 계속 생활했기에, 강도욱은 선수 생활을 하면서 ‘인천유
나이티드’의 존재를 항상 마주했다. 강도욱은 “제 고향이 인천인만
큼 크게 와닿은 팀이었다. 인천유나이티드가 인천광역시 내 유일한
프로 축구단이라서 더욱 관심이 있었다”면서 입단 이전에도 인천을
지켜봤다고 이야기했다. 프로 데뷔 팀으로 인천을 선택한 이유도 명
확했다. 강도욱은 “인천에서 오랫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인천유나이
티드에 꼭 오고 싶었다.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기뻐다”면서 고향
에 애착을 지닌 로컬보이의 모습을 보여줬다.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 노력했던 입단 후 생활

강도욱은 인천에 온 후 전지훈련을 떠나면서 본격적으로 프로 선
수 생활을 시작했다. 첫 전지훈련의 소감을 묻자 강도욱은 “템포가
무척 빨랐다. 그리고 프로 선수들은 힘도 너무 좋았다. 기술로는 부
족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피지컬과 경험에서 오는 차이가 컸다”
고 회상했다.

인천에서 본 선배들 중 공을 차는 모습을 보고 인상 깊었던 선수가
누구인지 묻자 강도욱은 망설임 없이 신진호를 선택했다. 같은 포
지션이기도 하고, 다재다능한 신진호는 강도욱의 입장에서 성장



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태우도록 돕는 선배였다. 한편, 강도욱은 프
로 선수에게 필요한 자세에 대해 “프로 선수는 일상도 축구로 가득
찬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대부분의 시간을 운동으로 보내고, 잠깐
씩 휴식을 가지는 생활에 익숙해지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전지훈련을 거치면서 프로 생활을 맞본 시점에서 세운 첫 시즌의
목표를 묻자, 강도욱은 “우선 데뷔전을 치르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데뷔를 시작으로 처음에는 다섯 경기 정도를 목표로 잡았
다. 그리고 출전 기회를 받으면, 경기장 안에서 내 장점인 패스와
슈팅을 팬분들 앞에서 보여드리고 싶었다. 운이 좋다면 빠르게 득
점도 올리고 싶은 마음이었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세간의 주목을 받던 유망주지만, 강도욱도 프로에 입단한 후에는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다. 시즌이 시작된 후 한동안 B팀에서 생
활한 그는 1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강도
욱은 “B팀에서 훈련하면서 우선 피지컬을 보강하고자 했다. 그리
고 수비할 때 적극적인 자세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팀
전체의 경기력을 위해서는 미드필더가 공을 자주 잡아야 한다고
느꼈다. 그래서 공을 받는 위치, 그리고 받기 전까지 공간을 만들기
위해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고자 했다”면서 중점적으로
연습하고 있는 점을 설명했다.

인천에 온 뒤 어느새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 강도욱에게 팀 적응은
잘했는지를 물었다. 강도욱은 질문을 받자마자 확신에 찬 목소리
로 “팀 분위기에 정말 잘 녹아들었고, 적응도 수월하게 했다. 팀에
서의 생활도 만족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국가대표팀에서 함께 생
활했던 동기 백민규, 최승구, 이가람 등도 인천에서 다시 재회했기
에 강도욱은 빠른 속도로 인천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



긴장되는 데뷔전에서 자신감을 얻은 강도욱

프로 무대에 들어오기 위해 노력을 거듭했던 강도욱은 지난 7월 17
일에 펼쳐진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8강 울산HD와의 원정 경
기에서 선발로 출전하며 데뷔전을 치렀다. 이날 인천은 선발 명단에
변화를 주면서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자 했는데, 강도욱은 또 다른
유망주 박진홍과 함께 중원을 지키는 역할을 맡았다.

경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자신의 데뷔를 직감했냐고 묻자, 강도욱
은 “아니다. 솔직한 기회가 이렇게 빠르게 찾아올지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강도욱은 선발 출전 소식을 들은 후의 기분에 대
해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경기 시작 전에도, 경기장에 들
어가는 순간에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내가 지금 깨어 있는 건지 의
심이 들 정도로 너무 설했다”고 이야기했다.

경기에 임하기 전 주변 선배들이 어떤 조언을 해줬냐는 질문에 강
도욱은 “무엇보다도 너무 잘하려고 욕심부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
이 들었다. 기본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차근차근 하면, 충분히 좋은

경기력이 나오리라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누구에게나 첫 경기는 긴
장되는 법이기에, 신인 선수에게는 제일 필요한 조언이기도 했다.

실제 경기가 시작된 후 강도욱은 중원에서 열심히 뛰면서 기회를
모색했다. 57분간 그라운드를 누빈 그는 팀의 패배를 막지는 못했
지만, 젊은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자신의 가치를 보여줬다. 힘들었던
전반을 넘긴 후 뒤로 가면 갈수록 경기력이 올라오는 모습도 보여
줬다. 강도욱은 “경기를 치르면서 우선 체력을 더욱 끌어올리자는
다짐을 했다. 수비할 때 더 적극적으로 붙고, 피지컬적으로도 아직
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리그 내 상위권 팀인 울
산을 상대했는데, 생각보다 해볼 만하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자신감이 붙었고, 더 노력하자는 자극이 됐다. 적응하면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면서 경기를 통해 느
낀 점을 정리했다.



인천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가 되겠다는 다짐

데뷔전을 앞두고 강도욱을 상징하는 별명이 언급되기도 했다. 인천
의 구단 공식 유튜브 콘텐츠에서 김유성이 강도욱을 ‘인천 외데고
르’라고 지칭했고, 본인도 ‘부평 외데고르’라는 별명이 있다고 답했
다. 세계적인 빅 클럽 아스날FC의 주전 미드필더인 마르틴 외데고
르의 플레이에 강도욱을 빗댄 별명인데, 실제로 닮았다고 생각하는
지 묻자 강도욱은 “사실 그 별명이 붙기 전까지는 외데고르라는 선
수가 누구인지 몰랐다. 얘기를 듣고 나서 궁금해져서 그 선수가 뛰
는 영상을 찾아봤는데, 몇몇 플레이가 비슷하긴 했다. 그렇지만 전
반적으로는 다른 점도 많았던 것 같다”는 솔직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렇다면 별명과 상관없이 자신을 대표하는 장점은 무엇이 있는지
묻자, 강도욱은 “중원에서 주변 선수들과 연계하는 능력이 뛰어나
다. 그리고 슈팅도 자신 있다”고 자신의 능력을 소개했다. 실제로 강
도욱은 경기장에서 기술을 바탕으로 주변 선수들을 돕고, 때로는 과
감한 원발 킥으로 경기의 활로를 찾으려고 하는 등 다채로운 활약
을 펼치곤 했다. ‘인천 외데고르’가 아닌, ‘제1의 강도욱’으로 성장하
는 모습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다.

데뷔전을 치른 후 올 시즌 목표에 혹시 변한 점이 있느냐는 질문
에 강도욱은 “다음 기회가 찾아온다면, 더 준비가 잘 된 상태로 경
기에 임하겠다는 욕심이 생겼다. 특히, 적극적인 플레이로 공격포
인트를 꼭 만들어내고 싶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했다. 득점, 도움
을 기록해서 팀을 더 위로 올리겠다는 강도욱의 의지를 엿볼 수 있
는 대답이었다.

마지막으로 강도욱은 “인터뷰를 처음 할 때는 긴장되고, 힘들었다.
그래도 몇 차례 경험해 보니 훨씬 편해져서 좋았다. 이번 인터뷰를
팬분들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인천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로 여겨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기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모든 길은 인천공항으로

글 = 박범근 UTD기자(keu0617@naver.com)

사진 = 오석근 작가(punchandjudy@naver.com)



인천유나이티드F.C.는 인천광역시에서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시민구단'입니다. 구단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파견 지원-예술로 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이라는 도시의 명소를 소개하는 기사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UTD기자가 소개해드리고 첫 번째 장소는 인천의 상징이자 관문, 인천공항입니다. (편집자 주)

고대 로마에는 '밀리아리움 아우레움'이라는 비석이 있었다. 영어로는 '골든 마일스톤', 우리나라 말로는 '황금 이정표'로 불리는 이 유적은 로마 모든 도로의 출발점이자 종착지였다. 이 비석 덕분에 로마인들은 어느 도시로든 갈 수 있었고, 어느 사람들이나 길을 따라 로마의 황금 이정표로 되돌아올 수 있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all roads lead to Rome)라는 표현의 기원이 된 것이 바로 이 비석이었다.

로마 시대부터 2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세계가 확장되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밀리아리움 아우레움은 로마의 전유물에서 벗어나 세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되었다. 로마의 황금 이정표가 비석과 돌길로 세계를 연결했다면, 현대의 황금 이정표는 공항, 철도, 항구처럼 더욱 다양하고 실용적인 형태로 바뀌었다. 이러한 현대적 의미의 밀리아리움 아우레움은 우리나라에도 존재한다. 바로 대한민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인천공항이다.

로마의 황금 이정표는 모든 길의 중심지였다. 그것처럼 오늘날 인천광역시도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는 의미의 'all ways Incheon'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중요한 교차로로 자리 잡고 있다. 인천은 단순한 도시를 넘어 글로벌 허브의 역할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인천공항이 있다. 인천공항은 대한민국 최대의 공항으로서 국내와 국제 항공 네트워크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국내 최대의 여객 수용 능력과 화물 처리 능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물류와 여객 운송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와 세계를 잇는 허브 공항으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루 평균 20만 명 이상의 여객을 수용하며 동북아 국제여객 수 1위를 차지했으며, 국제 수화물 부문에서는 세계 3위를 차지한 글로벌 공항이다. 이 수치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으며, 인천공항의 세계적인 위상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

2001년 문을 연 인천공항은 지금까지 총 3단계의 건설 확장을 거쳤다. 제1여객, 화물 터미널과 제1, 2 활주로 건설이 포함된 1단계 사업이 개항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2008년에는 2단계 건설 사업으로 제3활주로나 탑승동이 추가되었다. 2018년 1월에는 제2여객터미널 건설이 핵심이 된 3단계 건설 사업이 완료되었다.

현재 인천공항은 4단계 건설 확장 사업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 제2여객터미널 확장과 제4활주로 건설이 주요 골자인 4단계 사업은 2024년 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4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인천공항의 연간 여객 수용 능력은 7천 7백만 명에서 1억 600만 명

(+37.6%)으로 증가하고, 화물 용량은 500만 톤에서 630만 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운항 횟수 또한 50만 회에서 60만 회로 증가할 전망이다.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인천공항은 세계 3위의 여객 수용 능력을 갖춘 메가 공항이 된다.

인천공항의 규모와 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다. 인천공항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 모든 길은 로마의 황금 이정표를 향했던 것처럼 현대에는 수많은 길은 대한민국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인천공항은 그 길의 중심에 서 있다. 인천광역시는 인천공항을 통해 전 세계로 뻗어 나가며, 'all ways Incheon'이라는 슬로건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다.



인천공항과 인천유나이티드의 인연

인천공항과 인천유나이티드의 인연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3년부터였다.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협력 사업 확대에 따라 인천공항이 인천 구단의 프리미어 스폰서가 되었다. 인천공항은 2013시즌 중반부터 2018시즌까지 인천 유니폼 스폰서로서 자리하며 인천 구단과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갔다.

공항과 구단은 재정적 지원과 홍보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과 이벤트를 협업하며 관계를 강화했다. 인천은 홈 경기 날에 인천국제공항공사 브랜드이름을 개칭해 인천공항과의 파트너십을 발전시켰다. 2019년에는 인천시남부교육지원청까지 세 기관이 함께 지역의 청소년 축구 저변 확대 사업인 '블루 스타즈' 행사를 운영했다. 2018년부터 매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배 인천 청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대회에 인천은 유스 팀을 꾸준히 출전시키며 인천공항과의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고 있다.

인천과 인천공항의 파트너십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올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지역 청소년 축구 인재 양성을 위해 인천유나이티드F.C 산하 인천유소년체육진흥원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전달수 인천유소년체육진흥원 대표는 5월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해당 지원금에 관한 협약을 맺으며 구단과 공항의 협력 관계를 다시 팬들 앞에서 확인했다. 앞으로도 두 기관의 연대는 지역 사회와 인천 축구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UFC
BLUE MARKET

인천유나이티드 블루마켓 운영 안내

인천유나이티드의 새로운 상품들을 만나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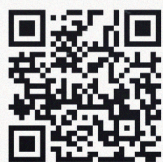
GATE-W7 옆 2층

경기 시작 2시간 30분전

경기 종료 30분 운영

경기중에는 매장 재정비를 위해 운영하지 않습니다.
※ 하프타임 매장 이용 가능

온라인 블루마켓



incheonutdmarket.com

블루마켓 플래그십 스토어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26-3
(신포 문화의 거리)



IUFC TV

우리가 알지 못했던
2024시즌 인천유나이티드의
피치 위 뒷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인천유나이티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매치 다큐멘터리 시리즈
피치 위에서를 시청해보세요!

YouTube

인천유나이티드 피치 위에서 |

